

- ① 拙稿：前掲註①論文 p.21.
 ②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 圖30
- ③ 金永培·朴容煥：公州西穴寺址에 關한 調査研究(Ⅰ) 百濟文化 第4輯 公州師範大學 附設 百濟文化研究所 1970
 ④ 安承周：公州西穴寺址에 關한 調査研究。百濟文化 第5輯。公州師範大學 附設 百濟文化研究所 1971
- ⑤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195。第43圖
 ⑥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 圖 101
 ⑦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p.193—196。
 ⑧ 輕部慈恩：前掲註③書 圖版 48의 4
 ⑨ 輕部慈恩：前掲註⑦書 圖版 37의 右
 ⑩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 圖 103
 ⑪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 圖 104
 ⑫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 圖 116、117
 ⑬ 百濟瓦塚圖譜：前掲註⑤—⑥書 圖 187、188
 ⑭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東城王二十二年條「春 起臨流閣於宮東 高五丈 又穿池養奇禽」云云
 ⑮ 輕部慈恩：前掲註③書 圖版 50
 ⑯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96 第12圖
 ⑰ 輕部慈恩：前掲註③書 圖版 46의 中右
 ⑱ 輕部慈恩：前掲註⑦書 圖版 35의 3
 ⑲ 安承周：前掲註②—③論文 pp.87—88 圖版 6
 ⑳ 金永培·朴容煥：前掲註②—③論文 pp.26—28 圖 17、18、20、
 ㉑ 安承周：前掲註②—③論文 pp.88 圖版 7의 1、2
 ㉒ 輕部慈恩：前掲註③書 圖版 48의 上左 1
 ㉓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198 第45圖의 4
 ㉔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p.202—204
 ㉕ 金永培·朴容煥：前掲註②—③論文 pp.27—28 圖 19
 ㉖ 安承周：前掲註②—③論文 p.88 圖版 7의 3
 ㉗ 輕部慈恩：前掲註⑦書 p.198 第45圖의 4
 ㉘ 秦長國立博物館：飛鳥白鳳の古瓦 圖版 6—17 東京美術 日本 1970

所謂 方壇式特殊形式의

石塔 數例 補

秦 弘 燮

筆者는 義城郡 安平面 石塔洞、安東郡 北後面 石塔洞、山淸郡 今西面 花溪洞에 각각 方壇式 石造遺構가 있어 이것을「考古美術」一一〇號①에 紹介하고 義城과 安東의 遺構가 位置한 地點의 地名이 모두 「石塔洞」이라는 점, 義城 遺構에는 第二段 四面에 龕室이 開設되어 各各 石佛이 安置되었고 安東遺構는 至近 距離에 「石塔寺」라는 古屋의 寺刹이 있어 지금도 香火를 올리고 있다는 점, 山淸 遺構는 「仇衡王陵」이라고 부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有三韓古刹 曰王山寺 寺後不數百步 疊石爲壇」이 라는 記錄으로 보아 寺刹과 관계된 遺構임이 분명하고 第四段 東面에 龕室이 開設되었다는 점 등을 綜合하여 「方壇式石塔」이라고 呼稱하였으 며 末尾에 가서

特異한 構造인 이들 遺構는 石塔 或은 舍利戒壇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나 그 分布地域이 安東·義城이라는 至近 距離에 同一한 遺構가 傳하고 떨어져 山淸에 類似한 例가 傳하는 點 또한 注目할 만하다. 고 맺었다.

그런데 筆者의 이 論文을 보았는지는 言及이 없으나 日本의 齋藤忠氏 가 一九七三年 義城과 安東의 石塔洞을 訪問하여 이 「方壇式石塔」은 實 査한 다음 그 旅行記를 日本 朝日新聞에 發表한 일이 있다. ② 이 旅行 記의 內容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1) 日本 岡山縣 赤磐郡 熊山町에 義城이나 安東에 있는 遺構와 全혀 同一한 遺構가 있다.

(2)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들과도 共通的 要素가 있다.

(3) 이들은 아마도 같은 祖型에서 導出되어 韓國과 日本에서 特異한 塔으로 發達하였을 것이다.
라 하고 끝에 가서

現在, 安東과 義城의 塔에 관하여 紹介한 韓國의 學者는 日本 熊山 頂上에 있는 同一形式의 塔에 관하여 紹介하지 않았고, 熊山の 塔의 存在를 알고 있는 日本의 學者도 韓國의 이들에 대하여 實査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고 했다. 사실 日本에는 奈良市の 「頭塔」、大阪府 堺市の 「上塔」 등 義城·安東의 遺蹟과 類似한 遺構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上塔인 고로 비록 龕形이 있거나 石佛을 配置하기는 하였고 그것이 秦漢以來의 中國의 方形土墳 또는 高句麗 將軍塚를 비롯한 여러 方形 石墳 등의 系列에 드는 外形이기는 하지만 義城·安東 등의 方壇形 石塔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齋藤忠氏が 指摘한 「熊山町」에 所在한 「割石築造의 方形三層의 特殊한 塔」은 우리의 方壇形 石塔과 거의 同一한 構造이며 이에 대한 調査報告書가 發刊됨에 이르러 이 報告書를 通하여 알 수 있는 現狀과 우리의 方壇形 石塔과의 比較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報告書③는 補修를 前提로 한 現況把握을 主目的으로 하였음으로 正確한 實測과 現狀 調査 그리고 熊山一帶에 散在한 同類의 小形遺構의 調査도 兼하여 現況報告에 그치고 있다.

이 報告書에 앞서 이 「熊山遺蹟」에 대하여는 이미 沼田賴輔, 永山卯三郎, 荒木誠一, 梅原末治, 大木琢壽, 近江昌司 等 諸氏의 論文을 비롯하여 世界考古學大系, 圖解考古學辭典, 日本考古學辭典, 佛教史學, 日本佛塔, 新版考古學講座, 日本의 美術 等に 紹介되어 있다. ④ 먼저 問題의 「熊山遺蹟」의 大강을 紹介하고 우리의 方壇式石塔과의 比較와 意見を 記述하고자 한다.

二

所謂 「熊山遺蹟」은 標高 五〇〇미터의 熊山 山頂에 位置하며 一九五六年 史蹟으로 指定된 遺蹟이다. 그 北方約 五〇〇미터 이 山의 頂上에는 「熊山神社」가 있고 南方에는 香登寺·福田寺라고 傳하는 寺址가



圖 1. 熊山遺蹟全景 (熊山町教委報告書에서)

남아 있다.

이 遺構에 대한 近江昌司氏의 상세한 調査 結果도 兼하여 引用하기로 하고 먼저 同氏의 論文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⑤

- (1) 이 遺構는 三段方形의 石築遺構이다. (圖 1)
- (2) 밑에는 一段의 基壇이 있어 四段이라고 하나 基壇一段, 主體三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第二段 四面에는 龕室이 있고 南龕이 가장 크다. (圖 2)
- (4) 遺構 西側이 盜掘로 破壞되었다.

- (5) 頂上에는 徑約 八〇cm의 圓筒形豎穴이 있고 있었는데 梅原報告에는 豎穴 깊이 約 二m로 推定하였다. (圖 3)
- (6) 石築手法은 古墳에서 볼 수 있는 割石을 써서 만든 石室 構成과 비슷하다.

- (7) 築造年代는 奈良時代이다.

- (8) 規模는 다음과 같다. (右의 數字는 熊山町 教育委員會報告書의 數值이다.)

		長 (m)				(m)	
		東側	西側	南側	北側		
石	基壇上緣	11.714	11.766	11.780	11.890	0.88	
	一壇下緣	11.73	11.53	11.69	11.85		
	〃 上緣	7.70	7.87	7.64	7.72	0.97	
	二壇下緣	7.934	8.000	7.660	7.880		
	築	〃 上緣	7.73	7.83	7.60	7.87	1.20
		〃 上緣	5.06	推 5.18	5.38	5.12	
〃 上緣		5.390	5.400	5.400	5.010	1.25	
三壇下緣		5.12	現 5.30	5.57	5.06		
〃 上緣		3.52	?	?	?		
龕	高(入口)	0.90	?	0.65	0.85		
	幅(入口)	0.62	?	0.73	0.72		
	深	0.90	?	1.36	0.95		

(9) 石築의 築造方法에 있어서는 韓國의 山城築造技術、塼塔·石築塔의 反映도 생각할 수 있다.

以上이다. 다시 우리의 方壇式塔과의 比較를 위하여 필요한 部分의 설명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石築 밑에는 큰 岩盤이 있고 이 岩盤은 東方과 南方으로 경사지며 서 延長되었음으로 基壇은 南方과 東方에서 높이 約 1m 가 되고 西方과 北方에서 거의 岩盤上面과 水平을 이룬다.
- ② 龕室은 마다에 板石을 깔고 側壁은 板石을 세우거나 石築을 하였고 板石으로 蓋石을 덮었으며 앞은 開放되었다. 龕內에는 現在는 安置物이 없다.
- ③ 石築은 흙을 使用하지 않고 돌만으로 築造하였다.

이러한 石築遺構의 性格에 관하여는 「戒壇說」, 「石塔說」, 「經塚說」 등이 있었으나 石塔說로 大勢가 기울어졌으나 近江昌司氏는 「墳墓說」을

主張하고 있다.

以上の各說中「戒壇說」이나「石塔說」을 主張하는 根據는 石築의 形式、四面의 龕室의 存在와 그 안에는 四方佛을 安置하였으리라는 推定、頂上의 堅穴에서 發見되었다는 圓筒容器와 三彩小壺^⑥는 舍利用器일 것이고 「經塚說」은 圓筒容器의 形態가 經筒과 類似한 데서 由來한 發說인 듯하다고 하였으며、「墳墓說」은 圓筒容器가 堅穴 속에 있었다는 事實에 着眼하여 原來는 그것이 頂上에 세워 있던 相輪이고 段形石築 위에 相輪을 세우는 日本內의 다른 墳墓의 形式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 圓筒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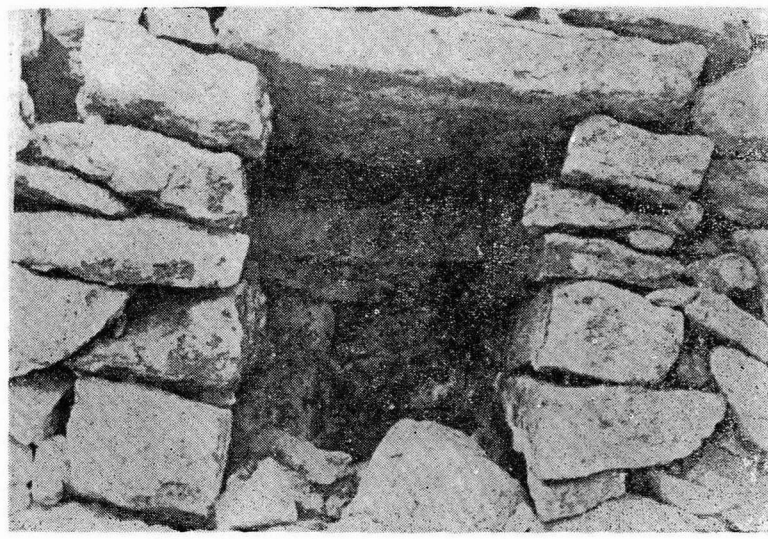


圖 2. 熊山遺蹟 東面龕室(熊山町教委報告書에서)

器가 頂上의 堅穴 속에서 發見된 것은 信仰의 對象이었던 이 圓筒容器가 後世에 秘藏의 뜻으로 堅穴 속에 納置되었다고 推定하였고 이 堅穴의 本來의 意味는 遺骨과 副葬品을 넣기 위한 施設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이 遺構의 築造年代에 관하여는 奈良時代로 되어 있다. 그 根據로 는 圓筒容器의 製作年代에 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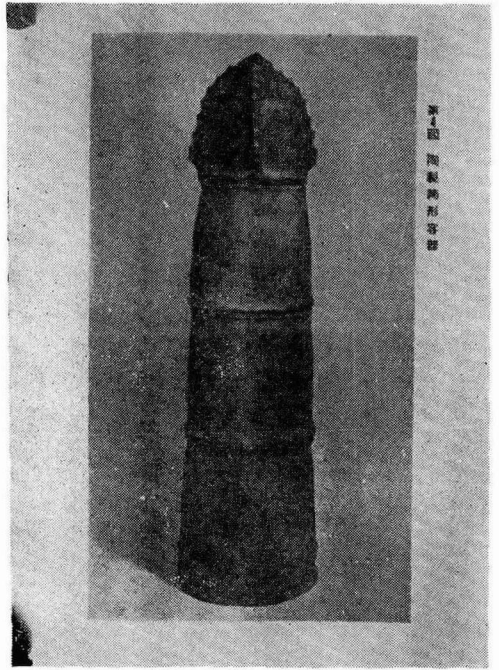


圖 3. 熊山遺蹟發見筒形容器(近江氏 論文에서)

據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石築遺構 東方鍾樓址라고 하는 遺址에서 發見된 瓦片은 鎌倉時代 即 十三世紀의 것이라고 하며 奈良時代의 瓦當은 山中腹에서 發見되었다고 한다.

三

以上으로서 日本의 熊山遺蹟의 構造와 性格이 把握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의 遺構와 比較할 차례가 되었다.

熊山遺蹟은 割石으로 築造한 段層 方形이라는 基本形에 있어서 우리의 石造遺構와 全히 同一하다. 細部の 構造를 比較하여도 傾斜진 地盤으로 因하여 一方에 築石이 있는 反面 다른 一方에는 石築 없이 地表에 連結된은 勿論 地勢를 따른 築造이었지만 山淸의 石造遺構와 同一하다. 다음은 龕室의 存在이다. 熊山遺蹟에는 第二段 四面에 龕室이 있고 義城의 石造遺構에는 第二段 四面에 龕室이 있다. 特히 義城 遺構에는 龕室 속에는 石佛이 一軀씩 安置되어 石塔에 四方佛을 彫刻하는 例와 같은 形式이다. 龕室의 築造方法도 바닥에 板石을 깔고 側壁은 板石 혹은 割石으로 築造하였으며 위에 넓은 板石으로 蓋石을 덮은 점彼此同

一하다. 다만 安東의 遺構에는 龕室이 없고 山淸 遺構에는 第四段 西面에 단 極히 退化된 龕室이 開設되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頂上部의 構造이다. 熊山遺蹟에는 길이 약 2m로 推算되는 堅穴이 있었다고 하나 우리의 세 遺構에서는 그러한 構造를 確認할 수 없다. 이들 頂上部는 매우 애매하게 處理되어 만약 發掘 調査를 實施한다면 혹은 特別한 內部 施設이 있을지 모르나 現狀으로서는 熊山遺蹟에서와 같은 板石이 없고 主體를 築造한 것과 같은 돌이 덮혀 있을 뿐이다. 또 山淸의 遺構는 近世에 와서 變形이 있었던 듯 頂上의 形態가 朝鮮時代 封墳 같이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構造를 通하여 熊山遺蹟이 우리의 세 遺蹟과 全히 同一하며 다만 內部에 어떠한 施設이 있는지가 疑問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다만 熊山遺蹟의 最下段의 石築이 基壇이 되어 그 위에 三段의 石築이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遺蹟에서는 基壇으로 보아야 할 그러한 뚜렷한 石築이 없다는 점이 彼此의 하나의 外形上의 差異點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義城과 安東의 遺構는 五段이고 山淸의 遺構는 前面에서 七段이어서 모두 韓國의 石塔層級과 같은 奇數로 處理되어 있다. 熊山遺蹟에 있어서도 基壇까지 쳐서 四段이라고 한 이도 있으나 ⑦ 近江昌司氏의 主張대로 最下段을 基壇으로 봄이 옳을 것이고 그래야 塔婆의 層級原則인 奇數 即 三段으로 處理된다.

四

以上과 같은 石造遺構에 있어 重要な 問題는 이들 石造遺構의 性格과 築造年代일 것이다.

첫째 性格問題는 義城, 安東, 山淸의 石造遺構가 모두 隣近에 寺院이 位置하였고 義城과 安東의 所在 地名이 「石塔洞」인 점, 또는 義城遺構 四面에 있었던 龕室과 그 안에 安置한 石佛의 存在로 因하여 이것을 一種의 石塔이라고 보았고 方形段層이 있는 特殊型임을 감안하여 「方壇式 石塔」이라고 불렀다.

日本의 熊山遺蹟은 「特殊한 石塔」이라고 보는 見解가 大勢를 이루고 梅原末治, 水野精一, 石田茂作, 福山敏男 諸氏가 同一하며, 石田茂作氏는

奈良市の「頭塔」、堺市の「大野寺土塔」과 아울러 ⑧ 段層을 이루는 塔婆를 「段塔」이라고 불렀고 前記 齊藤忠氏도 「特異한 塔」이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墳墓說을 主張한 近江昌司氏는 石塔說에 대한 다음과 같은 疑問點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는 頂部の 結構에 對해서이다. 이 곳에는 그 밑 堅穴에서 發見되 있다는 圓筒容器를 세워서 相輪을 삼았을 것이라는 推論이다. 이 容器의 上端은 十字形의 火焰에 싸인 水煙이고 그 밑의 三重 圓筒은 九輪을 省略한 三輪이어서 佛塔의 主體部인 相輪 같은 類의 施設이 된다는 것이다. 그 後 이 容器는 熊山佛敎遺蹟의 變質로 因해서 堅穴 속에 들어 가게 되었고 그 時期는 平安時代後期에서 鎌倉時代 即 十二世紀後半에서 十三世紀에 걸친 時代라고 보고 있다. ⑨

둘째는 石築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堺市の 「大野寺土塔」은 土築인데 比해 이것은 石築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그것이 아마도 岩山인 熊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材料가 돌인 까닭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石築은 「自然環境 外에 中國朝鮮에서 볼 수 있는 塼塔·石積塔의 反映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세째는 堅穴의 意味를 들었다. 이것은 積石의 構造로 보아 築成 當初부터의 것이고 이것이 따로 墳墓로서의 用途도 있었다고 생각됨으로 「遺骨과 副葬品을 納入할 場所로서 當初부터 이 堅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이 堅穴을 덮은 蓋石 위에 相輪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以上の 疑問點을 根據로 하여 이 遺構는 外形은 前記 土塔에 유사하나 「僧行基」나 「天武·持統合葬陵」 또는 岡山縣 久米郡 中央町の 「唐臼古墓」 등에서 볼 수 있는 方形 혹은 八角形의 段層으로 된 墳墓로 보아 야할 것이라고 다음 같이 結論的으로 強調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石積遺構의 外形·構造·出土品에 關하여 檢討하여 보면 그 外形은 土塔에 가까운 것이나 佛敎의 源流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本來的인 佛舍利를 奉納하기 위한 塔婆라고는 斷定할 수가 없다. 오히려 外形은 土塔型을 따라 段塔과 비슷하게 만듦 있으나 그 內實은 行基墓·天武持統合葬陵·唐臼古墓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墳墓가 될 가능성이 強하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近江氏의 熊山遺蹟에 대한 해석의 대강을 알 수 있다.

다음의 築造年代에 關하여는 遺構 自體가 奈良時代末葉에 屬하고, 陶質筒形容器의 樣式은 八世紀末에 比定, 三彩小壺는 八世紀中葉으로 보고 있다.

五

筆者는 「熊山遺蹟」에 關하여 깊이 論評할 만한 充分한 知識을 가지고 있지 않다. 遺構를 實査한 바 없고 그 곳에서 發見되었다는 遺物을 實見한 바 없는 때문이다. 그러나 諸氏의 상세한 報文에 의하여 그 대강을 알 수 있고 더우기 그 遺構가 墳墓라는 新說에 關하여 우리 遺構의 성격을 생각할 때 筆者의 氣望의 論考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近江昌司氏는 그의 論考에서 墳墓說을 再三 強調하고 있으나 이 遺構가 當初부터 墳墓로서 構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있다. 약간 지루한 감이 있으나 매우 重要な 問題임으로 그 줄거리를 추려 놓자 한다. 이와 같이 平安時代에 있어서의 熊山의 性格轉身은 앞서 山林修業場時代에는 信仰의 中核의 存在였다고 생각되는 石積遺構의 意義가 漸次 잊혀졌고 드디어 中世的 새로운 信仰形態를 받아드린 사람들에게는 本來의 性質은 完全히 잊혀졌을 것이다.

이리하여 새로이 形成된 信仰集團에 있어 이미 石積遺構에서 塔婆의 意義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첫째 塔에 相輪이 서 있을 필요가 없어졌고, 둘째로 陶製相輪의 突出部인 寶輪(三輪)에는 몇 곳의 缺損·破碎가 생기게 되었다면 破損된 狀態로 둔다는 것이 오히려 合當하지 않은 事態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窯業工人의 信仰을 囑導한 初期 段階에서는 頂部에 樹置된 筒形容器가 信仰對象으로서 相應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信仰對象의 神秘性을 強調하고 그 信憑性을 보다 昂揚하기 위하여 마침내 納骨用을 兼하고 擦을 意識하고 만듦은 直下의 堅穴에 秘置하는 結果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論調는 前後의 文脈에 모순을 느끼게 하는데 結局은 塔婆로서 建立되었던 것이 「새로운 信仰形態」로 하여 性格도 달라졌고 相輪도 堅穴에 넣었다는 뜻인 듯하다. 사실 頂上에 있었던 堅穴은 반듯이 納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는 점은 한국의 塔婆의 경우 擦柱孔이 最上層 屋蓋石까지 내려가 있는 例가 많고 感恩寺西三層石塔의 경우 擦柱孔은 三層屋蓋石을 貫通하여 三層屋身上面의 舍利孔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堅穴이 僧侶墳墓의 納骨用으로 마련하였다고만 解釋할 수 없다. 또 筒形容器는 盜掘에 의하여 採取된 것이고 原來의 存置狀態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資料를 근거로 한 立論은 매우 위험한 試圖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容器가 遺構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容器가 遺構 頂上에 세웠던 相輪이라고 해석하는 推定은 容認될 것이다. 그 形態는 前出 「頭塔」의 復原形態와도 共通되며 ⑩ 石田茂作氏의 所論대로 日本佛敎가 韓國의 佛敎와 달리 南傳佛敎라고 한다면 南方佛敎에 있어서의 佛塔形式과도 共通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⑪

다음 年代推定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遺構의 年代를 奈良時代라고 하였다. 이 推定에 대하여는 筆者는 더우기 甚히 言及할 수 없으나 다만 充分히 理解되지 않는 점은 一九七四年에 精密調査를 한 結果 築造當時의 遺物 即 土器와 瓦當 가운데서 奈良時代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同報告書에서는 瓦當은 가장 오랜 것이 鎌倉時代以前이라고 하였고 土器中 土師器는 平安時代以後의 것이라고 하였으나 須惠器에 대하여는 言及이 없다. 須惠器에 대한 實查가 進行된다면 좀더 正確한 年代를 밝힐 수 있겠으나 記錄에 의하면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다.

六

筆者는 우리의 石造遺構를 一種의 石塔으로 보았고 그 年代를 羅末麗初로 推定하였다. 或은 九〇〇年代 以前까지 올릴 수도 있겠으나 龕室內 石佛의 樣式으로 보아 八世紀中葉까지는 올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 熊山遺蹟에 對하여 異議가 있다면 그에 대한 最終的인 結論은 遺

蹟과 關係遺物에 대한 實查를 거친 後에 이루어져야 마땅하겠으나 關係 論文에 의하여 疑問點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傳하는 同様の 遺構의 關連下에 一次的인 意見을 辟略하여 두는 바이다.

註

① 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七一, 六

② 朝日新聞 昭和四十八年(一九七三)五月七日 夕刊 七面に 「奈良の佛敎遺跡と酷似點」韓國古代遺跡の旅から歸つて」라는 題目으로 發表하고 있다. 이 發表文 가운데의 文句로 보아 筆者의 論文을 본 것이 분명하다.

③ 이 報告書는 「熊山遺跡」岡山縣赤磐郡熊山町史蹟緊急調査概報(熊山町教育委員會刊一九七四、三)로서 角田茂、西川宏 兩氏에 의하여 筆者에게 보내 준 것이다. 여기서 兩氏에게 謝意를 表한다.

④ 以上の 諸記錄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沼田賴輔·備前熊山戒壇遺蹟考(考古學雜誌 第十五卷 六號、大正十四(一九二五)年六月)

(2) 永山卯三郎·史蹟、熊山戒壇に關する 調査報告(岡山縣通史、昭和五(一九三〇)年十一月)

(3) 荒木誠一·附記、戒壇址(改修赤磐郡誌、昭和十五(一九四〇)年二月)

(4) 海原末治·備前熊山の遺跡(吉備考古 第八十六號、昭和二十六(一九五三)年七月)

(5) 大木琢壽·熊山雜記(吉備考古 第八十六號、第八十七號、昭和二十八(一九五三)年七月·十二月)

(6) 近江昌司·備前熊山佛敎遺跡考(天理大學學報 第八十五輯、昭和四十八(一九七三)年三月)

(7) 水野精一·さまざまなる造像(世界考古學大系四、昭和三十三年(一九五八)年七月)

(8) 小林行雄·くまやまいせき(圖解考古學辭典 昭和三十四(一九五九)年六月)

(9) 大木琢壽·熊山戒壇址(日本考古學辭典、昭和三十七(一九六二)年十二月)

(10) 石田茂作·佛敎の變遷(佛敎史學 第十二卷 第一號、昭和四十四(一九六五)年二月)

(11) 石田茂作·段塔(日本佛塔、昭和四十四(一九六九)年三月)

(12) 福山敏男·戒壇と土塔(新放考古學講座八、昭和四十六(一九七二)年五月)

(13) 石田茂作·熊山戒壇(日本美術 10、昭和四十七(一九七二)年十月)

(14) 近江昌司·前掲書 第二章

(15) 이 一點의 遺物은 原形에서 採取된 것이 아니라 盜掘者에 의하여 盜取된 것이라고 하며 圓筒容器는 現在 天理大學參考館에 收藏되어 있으며 三彩小壺는 行方不明이라고 한다.

(16) 水野精一·前掲書(註④의(7)參照)

(17) 註④의 諸論文參照

- ⑨ 이 推定은 堅穴에서 發見된 것이라고 傳하는 海獸葡萄鏡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⑩ 註 ④의 (12)參照
 ⑪ 註 ④의 (13)參照

傳清州出土

石造半跏思惟像

黃 壽 永

국립박물관이 소장하는 높이 약 1m의 金銅半跏思惟菩薩像 二軀는 모두 우리의 國寶이며 世界の 至寶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傳來를 매우 多幸으로 여겨왔으며 그들 三國時代彫像에 대한 研究도 이 같은 傑作의 진래에서 비롯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우리 古代 彫像史에 유의하면서 그 初期에서 이 같은 특이한 樣式像을 주목하여 온 것은 이 같은 兩像이 있어서의 일이다. 이들 兩像의 造形과 그 오랜 保存은 物心兩面의 重大한 緣由가 있어서의 일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三國시대의 佛像樣式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이 같은 양식상의 높 이 발달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기에 오늘 이와 같은 優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古代美術의 전통에서 뿐 아니라 그 信仰의 내지 思想的 背景에서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큰 課題가 우리의 美術史를 엮는 그 첫머리에서 주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그 解明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三國시대의 彫刻史에서 찬란 하게 빛나던 우리의 榮光을 이들이 오늘에 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해방후 半跏思惟形 菩薩像에 대한 우리의 研究는 기왕의 資料와 知見을 훨씬 넘어서 增加되었다. 六, 七 兩世紀에 걸쳐서 유행한 이 樣式에

대한 기왕의 注目은 오직 三國중 古新羅에만 局限되어 왔었다. 그것이 高句麗와 百濟의 他兩國으로 擴大되어 가 자기 金石像의 새로운 資料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그들의 比較考察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半跏思惟形像의 綜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平壤市 平川里 傳弘福寺址 出土의 金銅像①을 비롯하여 忠南 瑞山 伽倻峽의 磨崖像②이나 同 燕岐 碑岩寺 등의 碑像③ 등은 모두가 近年의 麗濟의 新例라 하겠다. 또 古新羅에 있어서의 慶北 奉化 北枝里에서 발견된 巨大石像④은 그 復元值에서 東洋第一의 半跏思惟形石像이라 하겠으며 또 기왕에 注目된 바 있었던 慶北 月城郡 斷石山의 神仙寺石窟의 磨崖像 또한 새로운 調査를 받았던 것이다. 이 같은 遺例 以外에도 最近年에 이르러 金銅小像⑤의 新例가 增加되어 온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으며 그들을 통하여 이 같은 樣式像에 대한 研究의 進展을 기하려 하였다.

이 곳에 새로 소개하려는 것은 작은 石像의 一例인데 애석하게도 腰部 이상에 없어서 現高 10cm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같은 破像이나 마 필자에게는 數年來 드물게 보는 新例로서 그 出土地가 忠北 清州市에서 약 十里相距라는 사실이 口傳되고 있으며 現存部分의 양식도 磨損이 매우 심하기는 하나 臺座의 양식뿐 아니라 身部の 殘存部만으로서도 그 半跏思惟形式을 짐작할에 넉넉하다.

먼저 前面에 있어서는 腰部에 둘러진 裳衣의 結紐가 잘 남아 있는데 雙條를 이루는 腰帶가 露出된 곳은 오직 이 곳 前面뿐이다. 그리고 側面과 後面은 裳衣의 上端이 半圓形으로 反轉되어 있는데 이 같은 양식은 新羅 松花山石像(慶博)이나 國立博物館 金銅半跏像(舊德壽宮美術館像) 등을 들 수가 있다. 다음에 右足を 半跏하여서 左足 위에 얹었는데 右足指가 ㄱ字形으로 屈折된 사실을 보일 뿐 그 上面은 모두 脫落되었다. 그리고 이 足指部位에 이웃하여서 左手의 五指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右手를 屈折하여서 思惟形을 보이던 痕跡은 오직 右膝 위에 작은 破痕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腰帶上部의 殘存部에서 미루어 上部裸身의 이 같은 當代樣式像의 通例를 따르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이상이 身部에서의 前